



즉시 배포용: 2023년 12월 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첨단 기수 위기 소통 센터 발족 발표

악천후 발생 중 및 전후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센터

150만 달러의 연간 투자로 악천후 위험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 강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기후 위기 소통 센터(State Weather Risk Communication Center)를 University at Albany에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대학 연구자와 주정부 비상 담당자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최초의 기관입니다. 연간 15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센터는 악천후 정보를 수집하여 비상 담당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려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새로운 수단을 제공합니다. 센터는 또한 주정부와 파트너간 소통을 점검하여 악천후 상황에 위기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민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기후 변화가 더욱 빈발하며 더욱 심각해지고 따라서 예상치 못한 폭풍이 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천후 위험에 놓인 가운데, 저는 뉴욕의 기후 위기 소통 센터를 설립하여 우리의 대비 상태를 강화하고 악천후 발생 도중은 물론 전후 뉴욕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센터는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NWS)이 제공하는 양질의 예보를 비롯해 뉴욕주 메소넷(New York State Mesonet)이 제공하는 주요 인프라 관련 현장 정보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해 비상 담당자들의 특정 수요에 맞는 의사 결정 지원 도구를 새롭게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 발생한 대규모 폭풍으로 24시간 만에 뉴욕시에 7인치의 강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가 있었다면 첨단 기상 예보와 도시 하수 인프라 정보를 결합하여 실시간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히 어디에서 언제 홍수가 일어나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피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폭풍 전후 또는 폭풍 발생 시 센터는 예보와 메소넷 데이터를 관찰하여 도로 표면 온도를 측정해 지도를 만들고 도로 사전 처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지원은 주정부 수준의 비상 담당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뉴욕의 기타 공공 기관은 휴교 결정 등을 내릴 때 교육청장의 의사 결정을 돕는 등 기후 관련 결정을 내릴 경우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천후가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기간에 SWRCC는 주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 기후 훈련 및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편, 기수 비상 기관의 사후 분석에 대비하고 주정부와 파트너가 악천후 관련 위험에 대해 소통하는 방식을 점검합니다.

University at Albany 총장인 **Havidán Rodrí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더욱 많은 악천후를 경험하는 가운데, **University at Albany**는 뉴욕주와 협력하여 우리의 기상 및 기후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비상 대응 및 응급요원 활동에 접목시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기상 위기 소통 센터의 설립의 공로는 **Hochul** 주지사에게 있습니다. 주지사는 선도적인 접근법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학의 연구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어 안전하고 탄력적인 뉴욕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뉴욕주 기후 위기 소통 센터(**State Weather Risk Communication Center**) 국장인 **Nick Bassi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미 기상정보를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도입하는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욕주 기후 위기 소통 센터를 통해 이러한 비전이 현실로 실현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국립기상청의 양질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의 비상 대응, 운송, 에너지 파트너들이 폭풍 발생 도중, 그리고 전후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사회과학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더욱 나은 도구와 소통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UAlbany**라는 위치를 이용해 우리는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해 우리는 차세대 연구자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New York State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인 **Jackie B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악천후가 빈발하고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뉴욕주에서 우리는 대응 및 대비 능력,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상 대응 및 대비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과 **UAlbany**의 전문성, 국립 기상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새로운 센터는 악천후 상황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후 관련 위기에 대해 대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센터는 **UAlbany**의 **EETC** 건물에 위치하게 되며, 해당 건물에는 **NWS** 및 **UAlbany**의 **Atmospheric Sciences Research Center** 등 전국 최대 규모의 기상 클러스터와 기상 연구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NWS**의 **Albany Office** 옆에 위치한 것과 더불어, 센터는 다음과 같은 **EETC** 내 인프라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 **xCITE**(**EXTREME** Collaboration, Innovation, & Technology) 연구소는 첨단 데이터 및 시각 정보 분석 센터로 악천후 상황에서 센터의 운영 베이스로 활용됩니다.

- 뉴욕주 메소넷은 전국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기상 네트워크로 UAlbany가 개발하였고 ETEC 밖에서 주정부를 위해 운영됩니다.
- UAlbany의 College of Emergency Preparedness, Homeland Security and Cybersecurity의 연관 전문가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연간 1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약 10명의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고 학생 파트타임 근무와 인턴십을 운영하는 한편, 메소넷과 협력하여 새로운 데이터 컴퓨팅 아이টে을 개발하고 센터 운영 허브 장비를 구입합니다.

뉴욕주 기후 위기 소통 센터는 대학이 확보한 연방 보조금 300만 달러를 지원받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Exploitation of Mesonets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Weather Extremes (EMPOWER)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UAlbany의 기상 과학자 및 College of Emergency Preparedness, Homeland Security and Cybersecurity와의 파트너십인 EMPOWER은 [뉴욕주 메소넷](#)과 기타 첨단 관측 시스템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최신 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는 비상 담당자, 응급요원, 기타 주요 민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과학기술국(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지원을 받는 파일럿 프로그램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비상 대응을 개선하는 전국적 사업의 지역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SWRCC를 통해 뉴욕 주민들은 최초로 EMPOWER에 따른 연구 성과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